

주제회의
- 환경

재해지의 장애인들 - 후쿠시마 미나미소마

아오타 유시유키 [일본] 서포트피어센터 대표

여러분의 거주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발생을 전제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원전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신화”를 바탕으로 가동해왔습니다. 그래서 피난계획은 탁상공론으로 실효성이 없는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사고 시, 지방 시정촌(市町村: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정부에까지 정보와 진실은 닿지 못했고 피난에는 시간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본래 어린이의 피폭을 예방하기 위한 요오드 배부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배부되지 못한 채 피폭위험도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원전이 폭발해도 어디로 피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언제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대책도 없이 조금이라도 멀리, 더 멀리로 향하는 피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위한 가솔린이 없어 피난을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버스가 마련되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난 중에는 피폭지에서 온 피난민은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여겨 스크리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피난처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본 정보입니다. 편의점에서의 식료품 조달이나 화장실, 숙박업소로 피난하는 일도 후쿠시마에서 온 차량번호판은 거절당했습니다. 원전사고 피난민을 향한 크나큰 차별이 있었습니다.

피난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과 그 가족들입니다. 버스나 자가용으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전에서 20km 이내는 전원 피난, 20km~30km 이내는 옥내 대피로 냉방기, 환풍기를 끄고 창문에 문풍지를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꼼짝 말고 있으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TV 나 라디오를 통해 그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진, 쓰나미로 전기설비가 끊어진 지역에는 이 정보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20km, 30km 내에 외부로부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고 지원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의료, 복지는 모두 철수하고 식료품, 약 등도 끊어진 채 고립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재난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참혹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쓰나미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수는 1,605 명입니다. 원전사고의 참혹한 피난으로 잃게 된 재해 관련 사망자수는 2,312 명입니다.

재해로부터 살아남았어도 원전사고의 피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일본의 현재 어느 내각 각료는 원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없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재해 관련 사망은 사고가 없었다면 죽지 않고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병원의 입원환자, 노인, 장애인 입소시설의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망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직접 높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은 것이 아니면 원전사고로 죽은 것이 아닌 말입니까? 10 년, 지금도 피난 상태인 사람들은 4 만 4 천명이 넘습니다. 아직도 귀환할 수 없는 지역이 후쿠시마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폐로 작업은 30 년 넘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폐로기술을 만들어나가며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망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녹아내린 **シブリ** 지브리는 손쓰지도 못한 채 높은 방사능을 뿜어내며 후쿠시마에 있는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토는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광대한 부지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후쿠시마는 중간저장이며 최종처리장은 아닙니다. 정부는 30 년이 지나면 다른 지역에 한번 더 방사능 오염토를 이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방사능을 받아들일 지역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음에도 원전 재가동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40 년 이상 지난 노후원전의 폐로는 어느샌가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8000 베크렐 이하의 오염토를 재해지인 후쿠시마의 공공사업에 재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토인데 왜?’ 지역 주민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염토는 중간저장시설에 옮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제외한 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저장시설에 모두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귀환곤란구역의 일부를 제염작업 없이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염으로 나온 오염토가 중간저장시설에 모두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제염도 방사능 오염수치가 높은 곳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귀환곤란구역을 해제하고 돌아가기를 촉구한들! 정부는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부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저장도 탱크, 부지가 부족해져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업 관계자들의 반대로

실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근거로 무제염이나 바다 방류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부흥 지연의 원인을 주민측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본래 원인은 전력회사의 재해에 대한 부실 관리와 이익이 우선된 보수관리의 삭감 등 기업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 추진과 안전기준, 사고 시 피난계획의 미숙 등 정부의 책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해결의 책임은 기업, 정부이지 주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책을 방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차량부품에 결함이 있으면 기업에 즉시 리콜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수리를 합니다. 그러나 전력회사는 이번 사고 대응에서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보고도 지연되었습니다. 대응책이 나올 때까지 보고는 덮어놓고 대응책이 나오고 나서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는 발표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후 조차 같은 일을 계속해서 일삼는 기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과점기업이 기업이념과 컴플라이언스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입니까.

후쿠시마의 소아갑상선암 수는 1999 년부터 4 차례 이루어진 검사에서 암확정이 199 명, 암의심이 46 명이었습니다. 후쿠시마현 건강조사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원전의 방사능 영향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영향으로 수술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정부는 이 아이들에 대한 설명에 책임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가 피폭의 영향으로 2 세, 3 세까지도 차별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차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아이들은 이제 그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판단,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70 년 전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정부가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피폭자에게서 장애인이 태어난다는 풍문차별, 장애인이 태어나면 안 된다는 우생사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피난을 강요받고 있는 아이들은 이와 같은 차별과 동시에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난한 직원의 아이들도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불안도 끌어안고 있습니다. ‘장래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한다면 후쿠시마 사람이 아니면 안되겠지!’라고. 그래도 “자신들의 고향은 후쿠시마다. 그러니 자신들이 지면 후쿠시마의 아이들 모두가 지고 만다. 가슴을

떠고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절대 질 수 없다.” 이 직원들도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싶고, 또 해당 법인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원전사고는 익숙한 삶의 터전을 빼앗아갑니다.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선조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도 앗아갑니다. 생명, 희망, 과거, 현재, 미래를 앗아갑니다. 크나큰 분단을 만듭니다. 지역분단, 가족분단. 그리고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원전사고는 어디에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될 것입니다.